

갈 곳 잃은 돈, 1200조 돌파 '사상 최대'...부동자금 어디로

초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 찾지 못한 부동자금 가파른 증가
 석달간 부동자금 125조6000억원 ↑...월평균 42조원씩 늘어
 증가세 두배 가량 가팔라져...부동산·증시 자금 풀림 계속되나

시중에 갈 곳 잃은 돈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례없는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6월말 기준 약 1273조 6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을 포괄하는 M1(협의통화) 1058조1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35조원,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등 29조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5조3600억원, 증권사 투자자 위탁금 46조2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1089조원에서 올 3월 1148조원으로 늘어나 1100조원대를 돌파하더니 3개월새 다시 1200조원대를 뚫은 것이다. 달 간 늘어난 부동자금 규모는 125조6000억원으로 월평균 42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지난 3월까지 평균 20조원씩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두 배 가량 가팔라졌다. 저금리 여파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자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한은이 발표한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0.82%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떨어졌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도 0.94%로 하락해

첫 0%대로 내려갔다.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지속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실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풀림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가 2300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에도 개미들의 매수세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에는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58조555억여원의 증거금이 몰리는 등 투자 '광풍'이 일기도 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광의통화 증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이용거래용자는 1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은 주식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 거래 대금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치가 주택 매수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집값 오름세가 여전히 관망하던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에 시중 부동자금이 향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부동산 등으로 풀리는 시중 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로 흐르게 만들기 위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원금에 최소 연 1.5%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로 설정했다. 신봉우기자

“하반기도 어렵다”...불황 장기화되는 정유업계

상반기 5조원 이상 적자

상반기에 5조원 이상 적자를 본 정유업계가 하반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은 상승세가 더딘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 회복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상반기 유예받았던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6월 업계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0.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주보다 0.3달러 내렸지만 3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통상 국내 정유업체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밑돌면 정유사가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의미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물동량이 급감했다. 이에 항공유, 휘발유 등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제마진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해 하반기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내수 기준 석유 제품별 소비량은 총 7310만1000배럴로 전년 대비 7.4% 하락했다.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업계는 최근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올해 8월까지 정유업계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수준이다. 지난 상반기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 정유4사는 5조1000여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정제마진이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을 조심스럽게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만 커졌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겹치며 하반기 실적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최근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세금 납부 유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미희기자



휴가로 인해 석유 소비량이 많은 8월에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반기 수요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유업계가 상반기 유예받았던 석유수입·판매부과금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4~6월까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했다. 업계는 정부에 유예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시 1리터당 16원을 받고 있으며 정유사의 주요 지출 중 하나다. 국내 정유사는 한 달 평균 3000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업계는 최근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올해 8월까지 정유업계가

20~30대 절반이상 “10년안에 내집마련 X”

듀오·무주택 2030 미혼남녀 300명 대상 설문조사

무주택 20~30대 남녀 대부분은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낮은 집값과 낮은 임금 때문이다. 5일 듀오에 따르면 지난 달 21~25일 무주택 2030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여 150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대 대부분은 10년 이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58.0%)은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들에게 자가 마련의 제일 큰 걸림돌은 '계속 치솟는 집값'(74.7%, 복수 응답)과 '낮은 소득'(62.6%)이었다. '모아 놓은 돈이 없어서'(40.8%), '청약 당첨 경쟁이 치열해서'(19.0%),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해서'(13.2%)도 이유였다. 10년 이내 자가 소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남녀(42.0%)는 이유에 대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서'란 응답이 46.8%(복수 응답)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구매 예정이어서'(34.1%), '주택 관련 대출이 가능해서'(25.4%), '청년에 유리한 부동산 관련 정책 덕분에'(18.3%),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서'(8.7%)란 답변이 뒤따랐다.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로 '주택청약저축'(79.7%, 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준비했다. '예·적금'(48.3%)과 '주식·펀드'(23.7%)를 통한 재원 마련, '복권 구매'(11.0%), '재테크 공부'(10.0%) 등의 노력도 했다. 자가 마련은 아예 포기한 듯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11.3%에 달했다. 원하는 자가 형태로는 '아파트'(73.3%), '단독주택'(12.7%), '빌라'(6.0%), '오피스텔'(5.3%) 순이었다. 정승호 기자

장마에 태풍에 싼값된 채소·과일...“추석 장보기 겁나네”

사과 홍로 도매가 평년 대비 61.6% 급등...포도·배추·무 줄줄이 ↑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주요 채소·과일 도매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긴 집중호우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올라 추석 장보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6일 농수산유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사과 홍로(상품기준) 도매가격은 1kg당 7160원으로 평년(4431원) 대비 61.6%나 폭등했다. 홍로는 주로 추석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쓰인다. 사과 외에도 포도 캠벨얼리는 평년 대비 31.9%, 거봉은 43.4%나 올랐다. 채소값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96.0% 상승했다. 평년 대비로 37.6% 오른 수준이다. 무 역시 전년 대비 124.1%, 평년 대비 39.1%씩 올랐다. 오이는 평년과 비교해 37.6%, 토마토는 29.8%씩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총 1만9926ha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도 40ha다. 벼 등이 비와 바람에 쓰러지는 도복 피해가 1만4267ha로 가장 큰 가운데 낙과 피해도 3355ha에 달했다. 침수 피해도 1406ha 수준이었다. 특히 낙과 피해가 가장 컸던 과일은 사과였다. 사과 낙과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1670ha로 보고됐다. 배는 1514ha, 복숭아 등은 171ha였다. 역대 최장기 장마에 이어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겹치면서 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어 출하에도 차질이 빚어져 고스란히 도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장마 영향이 반영된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보면 농축수산물물은 1년 전보다 10.6% 상승하며 2017년 8월(10.7%)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특히 채소류 가격 상승폭이 28.5%로 2016년 11월(32.9%)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배추(69.8%), 고구마(56.9%), 토마토(45.4%), 호박(55.4%) 등이 크게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도 12.1% 올랐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나 상승했다. 2017년 1월(15.9%)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속되는 기상여건 악화로 올 추석 밥상물가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전망에 대해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은 “과일의 경우 올 봄 병해 피해가 큰 상태에서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더 발생한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욱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반면 보통 8월말~9월초 가격이 늘 오르는 채소류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 하향 안정화돼 평년 수준 대비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한정 판매

내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매 응모...9일 당첨자 발표

원단과 같은 질감으로 후면 글래스에 구현했다. 사용자 경험(UX)도 외관 디자인과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그니처 패턴을 잠금화면까지 이어지게 하고, 배경화면에도 적용했다. 또한, 요일별로 바뀌는 톰브라운의 아트스케치 잠금화면과 톰브라운의 세계관을 디지털화 한 전용 포토필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패키지는 ‘갤럭시 Z 폴드2’뿐 아니라 톰브라운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갤럭시 워치3’ 41mm 모델,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포함된다. ‘갤럭시 워치3’는 톰브라운 그레이 색상의 메탈 프레임에 시그니처 패턴을 적용한 가죽 스트랩으로 현대적이면서도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며, 톰브라운 전용 워치페이스 5종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더욱 고급스러운 마감과 함께 톰브라운 디자인의 가죽 케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패키지는 2종의 폴더블본 가죽 케이스와 2종의 ‘갤럭시 워치3’ 스트랩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한다. 한편,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파미에스테이션, 코엑스 파르나스몰, IFC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등 갤럭시 스투디오 5곳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체험이 가능하며,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한정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